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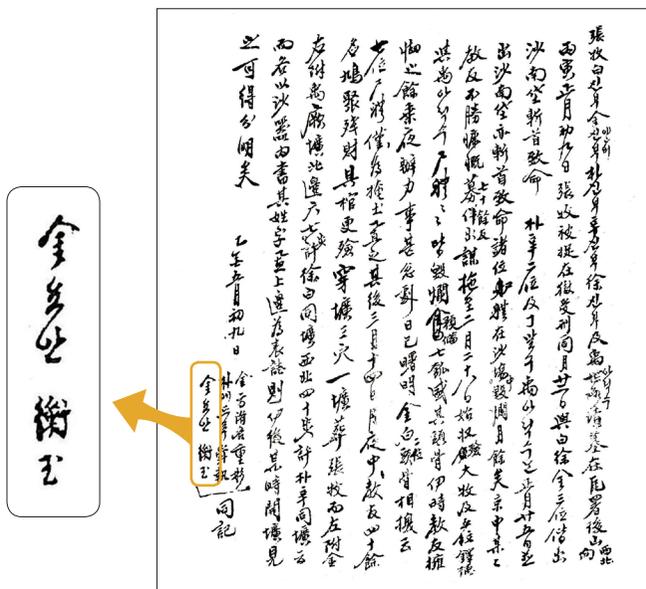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김기호 회장, 교회사 기록에 나오는 김형옥 회장과 동일 인물 (3)

- 김기호 요한 회장 관련 자료와 김형옥 요한 회장 관련 자료의 비교 -

필자는 김기호 요한 회장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함으로써 이전까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선교사제들의 서한과 신자들의 증언 기록에서 나오는 ‘김형옥 요한 회장’의 이름(자(字))과 가족 관계, 행적 등이 김기호 회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형옥 회장과 김기호 회장이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또한, 김기호=김형옥 회장이 1860년대와 1870년대 후반~1890년대 초까지 수행했던 교회 활동[전교와 교육, 선교사제 수행과 보좌, 교리서 저술, 순교자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기호 회장 관련 핵심 자료에는 회장의 자서전『봉교자술(奉敎自述)』(1901), 후손들의 가전 자료[『신앙인의 유산 - 4대에 걸친 발자취』(김재환, 1979)], 족보 기록[『안동김씨대동보(安東金氏大同譜)』 전10권 중 제4권(1980)] 등이 있습니다. 한편, 김형옥 회장에 관한 교회측 자료는 회장 자신의 시복재판 증언이 수록된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교구재판), 김형옥의 이름과 행적이 언급되는 『병인치명사적』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김형옥 회장을 복사 겸 총회장으로 삼았던 블랑 주교의 서한 등이 있습니다.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84 문서 (고문·색인편, 1987, 1쪽) - 『병인치명사적』 24권 73~74쪽의 원본에 해당한다. 1월호 3쪽 사진 참조. ‘金 多 安 衡 玉’이 명기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월호에 이어 신자들의 증언 기록인 『병인치명사적』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에서 확인되는 ‘김형옥 요한’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뇌 주교가 황해도 공소 방문 중 곤욕을 치른 사건과 연관된 회장 - 치명사적, 주교 서한

위의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호(3쪽)에 언급했듯이 김기호의 『봉교자술』과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교구재판 127회차) 김형옥의 증언에 나옵니다. 『병인치명사적』(24권 60~62쪽)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언자(병인 순교자 재판록(1차) 9권 1985쪽에는 권치문 타대오라고 나오는)는 1863년 8월 초7일(양력 9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봉변을 당했던 베르뇌 주교 역시 자신의 서한 [1863년 11월 18일 만주대목구장 베를 주교에게 보냄]에서 그러한 사건이 1863년 9월에 일어났다고 적었습니다.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018, 469쪽]

『병인치명사적』의 증언[권치문의 진술]에는 ‘김기호’, 또는 ‘김형옥’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황해도 지역의 어떤 회장이 위급한 병자가 있다는 사실을 베르뇌 주교에게 알렸고 주교가 그곳으로 왔다가 비신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성사를 주지 못하고 떠났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봉변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은 김기호의 『봉교자술』(한글본 7뒤~9앞 / 한문본 4뒤~5뒤)에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병인치명사적』에 나오는 황해도 지역의 회장이 바로 ‘김기호=김형옥’ 회장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45 ‘치명기’ - 서흥 회장 김형옥(金衡玉) 요한

이심여(李心汝)부터 정태정(鄭泰鼎)까지 17명 순교자들[대부분 『치명일기』에 수록됨]의 치명 사적을 기록한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45(현대문편, 269~278쪽)은 필사본 『병인치명사적』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수원교회사연구소의 역주본 4책 976~1009쪽에 이 내용을 포함시킴] 한문으로 작성된 ‘치명기’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대부분 황해도 수안(遂安)이나 서흥(瑞興) 출신이고, 일부는 서울, 개성(開城), 평양(平壤) 출신이지만 이들도 황해도 신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흥 회장인 김 요한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명기’ 순교자들과 서흥 회장 김 요한과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순	‘치명기’ 순교자	출생지	김형옥과의 관련성	김형옥 명칭
1	이심여(李心汝) 요한	서흥 능동(陵洞)	—	—
2	이 요한 *맹인 [이심여의 아들]	(서흥 능동)	본 회장에게 교리와 기도 배움	본 회장
3	이여도(李汝度)	수안 물안(物安) 상촌(上村)	회장이 사는 서흥 섬곡(蟻谷)으로 이사	(서흥 섬곡) 회장
4	이길준(李吉俊) 요한 *절음발이 [이여도의 지친]	수안 물안 상촌	회장이 베르뇌 주교를 청해 세례와 견진성사 받음	회장
5	정군칠(鄭君七) 토마스	서흥 능리(陵里) 지식촌(芝石村)	김 회장을 찾아와 교리를 배우고 입교함. 베르뇌 주교에게 세례를 받음. 주교에게 세례를 줄 권한을 받아 회장의 일을 도움	김 회장
6	이효신(李孝信) 요한	서울	1866년 박해가 일어나자 서흥 김 회장 요한이 사는 골짜기에 들어와 거주	서흥 김 요한 회장
7	최운학(崔雲學)	서흥 울리(栗里)	—	—

순	'치명기' 순교자	출생지	김형옥과의 관련성	김형옥 명칭
8	고(高) 첨지(僉知) *부부가 같이 치명	서흥 부중(府中)	—	—
9	김택보(金澤浦) 마르코 *붓장이[筆工]	서흥	서흥 동북 30리의 어리동(於里洞)으로 피신. 김 회장 요한과 같이 거주.	김 요한 회장
10	임정제(林定濟) *이속(吏屬, 아전)	서흥부	—	—
11	차종도(車宗道)	서흥부	—	—
12	김선여(金善汝)	서흥 남면(南面) 궁동(宮洞)	—	—
13	김영백(金榮伯) 시몬	수안 → 서흥읍 이주	—	—
14	이문홍(李文翁) 바오로 회장 *유생	개성 덕암(德岩)	*베르뇌 주교에게 세례받음. 덕암에 공소 마련, 황해도 신자들이 서울 왕래할 때 편의 제공	—
15	이달손(李達孫) *이운거(李雲舉) 시몬의 둘째 아들	수안 물안	*부친과 함께 송도 서북 땅으로 이주. 송도에서 붙잡혀 치명	— (*김기호의 동료 이운거의 아들)
16	유정률(劉貞律) 베드로	평양 동촌(東材)	—	—
17	정태정(鄭泰鼎) 베드로	평양 동촌 답현(叡峴, 논재)	서흥 능동(陵洞)의 김형옥(金衡玉) 회장을 초빙해서 평양, 중화, 황주 등지를 다니면서 전교함	서흥 능동 김형옥 회장

서흥 능동[현재 황해북도 서흥군 금릉리에 있는 마을] 출신 이 요한은 그곳 회장에게 교리와 기도문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요한의 부친인 이여심 요한도 당연히 능동 회장과 교류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능동 회장이 김형옥(金衡玉)이라는 사실은 정태정에 대한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양 답현[논재, 현재 평양 역포구역 대현동]에 살던 신자인 정태정(鄭泰鼎) 베드로는 서흥 능동까지 찾아가 김형옥 회장을 초빙하여 평양뿐 아니라 중화(中和) 지역과 황해도 황주(黃州) 지역까지 돌면서 전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을 『봉교자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평양 사는 정 빈첸시오가 자신의 동생을 김기호 회장에게 보내 강론을 요청하자 김 회장이 평양으로 왔으며 정 빈첸시오의 안내로 평양, 중화, 황주 지역까지 돌면서 전교 활동을 했습니다.(한글본 12앞~13뒤) 한문본에는 정 빈첸시오의 이름이 정태형(鄭泰亨)으로, 김기호를 찾아간 정태형의 동생 이름이 [정]태정(鄭泰鼎)으로 나옵니다.(한문본 7앞~7뒤) 이를 통해 정태정 베드로 관련 진술에 나오는 김형옥 회장이 김기호 회장과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치명기’ 이심여와 정태정 관련 진술에 나오는 김형옥 회장의 거주지 ‘서흥 능동’은 『봉교자술』이나 다른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이여도(李汝度) 관련 진술에서는 이여도가 자신의 고향인 수안 물안[현재 황해북도 수안군 철산리]에서 회장이 사는 서흥 섬곡(蟾谷, 현재 지명 불명확함)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치명기’에는 서흥 회장의 거주지가 ‘능동’, 또는 ‘섬곡’으로 나오는데 두 곳이 같은 지역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지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교자술』에는 김기호 회장이 고향인 수안을 떠나 서흥 지방으로 이주하여 공소 집을 마련한 곳을 ‘두꺼비집골’(한글본 6뒤), ‘섬곡’(蟾谷)(한문본 4앞)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김형옥과 김기호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명기’ 김택보(金澤浦) 마르코 관련 진술에는 김택보가 가족들과 같이 서흥 어리동(於里洞, 현재 지명 불명확함) 산골에 피신해 살았는데, 1866년(병인) 천주교 박해가 발발하자 김 요한 회장이 가족들과 함께 산골로 피신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졸들의 습격을 받아 김택보 가족 등이 붙잡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1866년 박해 이후 김[형옥] 회장 가족이 어리동으로 피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교자술』에는 베르뇌 주교가 잡힌 소식을 들은 김기호 회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산성(山城)[고구려 시기에 축조된 대현산성(大峴山城)으로 추정됨] 어리골(한글본 14뒤)로 피신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문본에서는 어리곡(於里谷)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한문본 8뒤) 위의 김택보 관련 진술에 나오는 ‘어리동’과 ‘어리골’=‘어리곡’은 동일 지명으로 보이며, 이런 사실을 통해 김[형옥] 요한 회장과 김기호 요한 회장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명기’ 이달손(李達孫) 관련 진술에는 김형옥 회장 관련 내용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달손이 수안 물안 출신으로 이운거(李雲舉) 시몬의 둘째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봉교자술』에는 김기호 회장의 동향 친구로 함께 베르뇌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운거 시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한글본 5뒤) 한문본에는 ‘李雲舉 西滿’으로 나옵니다.(한문본 3뒤) 이를 비교해 보면 ‘치명기’와 『봉교자술』에 나오는 ‘이운거 시몬’이 서로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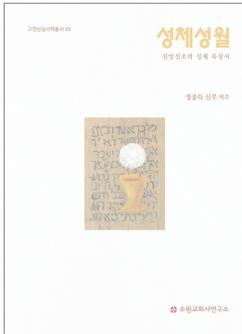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치명기’ 17명 순교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김형옥=김기호 회장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성체성월』(고전신심서적총서 03) 간행 (2023.12.25.)



신앙선조들의 성체 묵상서

- ‘영성체 준비’, ‘성체강복’, ‘성체묵상’을 하기 위한 최고의 책

‘1890년’ 유일 필사본을 현대어로 풀고 주석을 붙여

우리 시대의 천주교인을 위한 묵상서로 새롭게 펴냈습니다.

정종득 바오로 신부 (수원교회사연구소장) 역주

409쪽, 25,000원

역주본 및 영인본·판독본·현대표기본 수록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4호 원고 모집 (마감 연기)

- 투고 마감일 : 2024년 1월 31일 (2월 15일까지 연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심사를 거치는 정규 학술논문 이외에 보고서, 서평, 자료 소개[해제], 번역문 등 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과 자료도 『교회사학』에 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